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이강일

작년 수능 23233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으로는 제가 넣었던 모든 수시의 최저등급을 맞출 수 없었고 정시로도 제가 목표한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받아왔던 성적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고3 때 실패한 원인이 자기관리 미흡이라 생각해서 종로학원 본원에 들어갔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생활지도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학습, 특히 수학 관련입니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1년 전보다 수학적인 사고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성적을 상승시킨 것은 바로 여러 문제와 상황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습으로 단련된 꼼꼼함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능 수학은 오로지 올바른 답을 시간 안에만 내면 되는 타임어택 퀴즈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또는 귀납적 풀이로 문제를 풀었다면 찝찝해하지 말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간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자신이 수학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명제를 직관적으로 참이라 생각한 뒤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면, 반드시 그 명제를 증명하거나, 최소한 증명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최소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답지를 보거나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면, 차라리 그중 흥미로운 문제만 몇 개 골라서 철저히 고민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경험과 비결이 축적되고,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경험'이 '아이디어'의 형태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단답형 시험이기에 실수는 곧 오답입니다. 저는 실수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 수능에서도 실수했습니다. 후배님들의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의 오답이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실수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시험 도중에 정신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실수가 수능 전에 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수능 당일에 최대한의 집중도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학원 수업 중에 국어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문제를 틀렸을 때 드는 아쉬움은 한 달 전에 못 본 EBS가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저지른 오류다.” 전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틀릴 때는 그걸 안 배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도중에 엉뚱한 짓을 했거나 사소한 논리상의 구멍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능을 준비해왔던 그 많은 날보다 수능 당일 단 하루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에 쏟아 부어야 아쉬운 마음 없이 수능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생활 동안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작년 수능에서 실패한 기억이 공부하던 도중에 언젠가 한 번쯤은 날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도중에 갑자기 작년 수능의 기억이 날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또다시 실패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해도 결국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끔 하신다면, 정말 완전히 무의미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심은 곧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고, 재수하게 된 시점에서 답은 당연히 전자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했으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접어버리고 현재, 다시 말해 공부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수기를 마치 '재수 성공의 비결'처럼 썼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들은 모두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공부법에 관련된 조언은 일부의 학생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열심히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하는 것에는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옳았는지는 수능이 끝나고 채점까지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하고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성공에 한 발짝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여 마지막에 성공했을 때, 그 때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국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물린 이야기가 되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종로학원 후배님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길 기원합니다.